

水準높은漁業 基盤위한 漁港

일본 후쿠야漁港部長 말 잘사는 어촌 뒷받침

“앞으로의 어항정비는 어업정세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양적인 충족과 함께 보다 수준 높은 어업을 위해 질적인데에 중점을 둔 기반만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수산청의 후쿠야 어항국장(일본서는 部長이라 부른다)은 일본어항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가꾸고 키우는 어업이 전국각지에서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바다에 대한 관리문제가 커다란 과제이며, 어떻게 하면 살기좋은 환경의 어촌만들기를 앞당기는가가 중요한 정부 테마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직 도시의 주민을 위해서도 행해지지 않고 있는 환경정비공업을 무엇때문에 어촌 등 지방의 주민을 위해 먼저 실시하느냐는 반론도 일고 있지만 도시는 문화·교통 등에는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나, 불리한 여건아래 있을 수록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후쿠야 어항국장은 말했다.

하수처리용지를 확보한다 든가 자동차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비 등 살기좋은 어촌만들기를 위해 종합적인 어항정비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어항행정은 이들 어촌지역의

주민들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의 흐름으로 주민들의 요청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정도 이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항협회는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아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어느 면으로나 원숙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고 말한 후쿠야 국장은 “전국어항협회는

어항관리자들이나 어항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있다. 보다 좋은 어항, 보다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현지 주민의 요청이나 희망을 파악하여 이것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펴나가야 하며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문이 속출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으므로 어촌과 협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아래 밝은 앞날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新長崎漁港건설공사 한창 國際마린都市 표본을목표

일본 나가사키(長崎)시에서는 지금 新나가사키어항 건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시의 미에(三重) 지구(어항건설지구)에 수산연구기관 등을 입주시켜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하는 ‘국제마린도시구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나가사키는 지난 11월 22일 조기실현을 추진하는 ‘나가사키국제마린도시건설기성회’의 설립총회를 열

었다.

이 기성회는 가사키縣이나 시정촌(市町村)을 비롯, 의회나 산업경제단체 등 24개단체로 구성하여 민과 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총회에는 縣知事와 縣의회의장, 縣어항협회장 등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했는데 타카타知事は “나가사키縣의 수산업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동해(太平洋)와 황해

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 시야에서 나가사키시를 키워 나가고 싶다"고 인사했다.

회장에는 縣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이 선출되었다.

이 구상은 新어항 동쪽의 오키히라(沖平)지구 약 8.3헥타르를 매립, 東海, 西海의 자원관리 등을 연구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집적이나 해외의 연수생을 받아 들이는 시설을 건설, 국제교류의 거점만 들기를 총사건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사업단의 「나가사키국제수산업연수센터」나 나가사키 대학의 「東海·黃海 해역 생산과학연구센터」의 설치를 비롯 수산청 西

海區수산업연구소, 縣수산업시험장의 이전에 따른 국제해양종합연구지역의 건설을 중핵(中核)으로 하고 있다.

이 기성회는 총회의 마지막에 “나가사키縣의 특성을 살린 구상은 현세(縣勢)의 발전이나 국제협력에 크게 공헌할 것이며 전 나가사키縣이 일체가 되어 총력을 걸 집해서 기필코 완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결의 하는 한편 앞으로 1992년도 실현을 목표로 국회나 정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진정하는 등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점이 많다고 자랑이다.

더욱 이 제품은 재단법인 국토개발기술센터의 평가품으로 되어 있고 전국생필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생필품협동조합의 추천품으로 가격은 12개 들이 9,000엔이다.

NTT자금을 漁港건설에

日本, 無利子로 融資

올해부터 일본 정부의 NTT자금(일본전신전화주식매각자금)을 운용해서 지역활성화에 연관되는 긴급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과 민간활력을 도입한 시설정비에 대해 무이자로 대부하게 되어있는데 이 가운데 어항관계 사업주체는 어업협동조합이 맡기로 했다.

이미 설립발기인회(발기인대표 이케지리 전어련회장)를 마치고 지난 9월 5일 정식 설립준비회를 개최했다.

〈사업내용〉

어항·어촌의 진흥을 위해 다음의 시설에 부대되는 사업을 전개한다. 1)소속원의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에 관한 시설 2) 선착장, 기타 소속원의 어업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시설 3)소속원의 조난방지 또는 조난구제에 관한 시설 4)소속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 5)연합회사업에 관한 소속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소속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에 관한 시설 등.

생콘크리트속 塩分量 간단히 測定할 수 있는 試驗紙 모양의 칸타부販賣

일본의 (주)오노타(小野田)는 리트마스시험지 모양의 시험지를 사용하여 간단히 생콘크리트속의 염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염분측정계「칸타부」를 발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이 제품의 특별선전판매기간(30일까지)으로 정하고 동제품의 성능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칸타부」는 염분 분석법의 하나인 몰법을 기본원리로 해서 임상화학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건조화학적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염소이온이 존재하면 다갈색의 시약이 흰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가운데 포함된 염화물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법은 이 제품을 시료인 콘크리트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 시험지를 사용하면 오렌지색에서 암청색으로 변화하므로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다.

시험지 중앙의 모세부분이 백색(담황색)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정점을 지지하는 수치를 읽어 첨부된 환산표로 염분량이 측정되도록 되어 있다.

오노타사에서는 ①정도가 좋고 개인차가 없다. ②전국의 조정 등이 필요가 없이 아무데서나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다. ③전지나 코드 등이 필요치 않고 어디에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 ④시멘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⑤기록보존이 가능하다. ⑥유지비

“어항정비, 강력히 촉진하라”

일본 전국어항협회, 수산인동원 내각에 진정

일본의 사단법인 전국어항협회는 지난 11월 18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열린 제 40 회 전국어항대회에서 결의한 ‘제 8 차 어항정비계획의 촉진과 어항개발사업 예산확보’에 관한 진정활동을 전개했다.

야노(矢野) 전국어항협회장, 각縣어항협회장 등 전국의 어업관계자를 총동원, 내각과 재무(大藏), 농수산부, 수산, 국토, 北道개발, 오키나와개발 등 각廳의 관계省廳과 여당인 자유민주당 衆·參議院 농수산위원장, 어항정비촉진의원 연맹임원, 각당 수산관계 국회의원 등에게 진정하고 실현을 호소했다.

진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8 차 어항정비계획의 촉진과 8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현재의 냉혹한 어업정세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 강력한 촉진을 추진한다.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 강화와 8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밝은 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에 따라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의 확충,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어항환경정비사업촉진을 꾀한다.

▶제 4 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촉진과 8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어업취락의 안전확보나 쾌적한 해안환경의 창출 등을 위해 해안사업의 더한층의 촉진을 꾀한다.

▶어항관계 사업과 관계되는 지방



/ 벚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 풍어깃발을 에워싼다...

‘어항의 노래’ 선정 일본전국어항협회

일본의 전국어항협회가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공모한 어항의 노래 가사모집에는 3,420편의 응모가 있었는데, 지난 11월 17일의 기념식에서 입선작이 발표되었다.

입선가사는 사이다마(瑤玉)현의 고이씨(河井哲治)가 입선작에 뽑혔고 가작 2편, 노력상 2편도 나왔다.

입선작에는 상금 20만엔과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총리대신이었던 스즈키(鈴木善幸)씨의 기념품도 전달되었다.

입선한 가사 ‘어머니 어항’은 다음과 같다.

1. 벚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부담액의 경감=국고보조율을 복원해서 지방부담금의 경감을 꾀한다.

~ 陳情하기 하루 전날인 11월 17일 전국어항협회는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도쿄에서 개최한 바 있다.

풍어깃발을 에워싼다.

오징어배 게잡이배 명태잡이배
오늘도 썩썩하게 갈매기 난다
어머니 어항의 날이 샌다.

2. 아내의 오토바이에 흔들리면서
멍청한 헬이 미끄러진다.
박수소리 뒤로하며 출항을 한다.
이제 곧 잔치판 힘껏 일하자
어물쩍거리면 엉덩이가 웃는다.

3. 하룻밤을 안졌다가
힘찬 발걸음
어항은 나의 어머니이다.
문어배 도리배 콩치배
잡은 것은 이것저것 다르다 해도
우리는 어머니 어항의 역군이다.